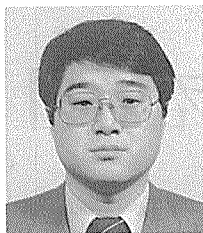


컴퓨터의 맹점

이진법으로 엮어진 컴퓨터의 논리기초는「YES」와「NO」 혹은「ON」과「OFF」 밖에 없는 것이기에 중간이 존재치 않는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이것」 아니면「저것」으로 표현되거나「좋다」 아니면「싫다」라는 이진법적인 사상으로 엮어져 있지는 않다. 좋으면서도 싫은척 하는 처녀들의 마음이나, 아프면서도 태연한척 하며 예방 주사를 맞는 어린애들의 얼굴도 흔히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이 느낌을 갖는 컴퓨터의 인식은 감정이 없고 매우 공명정대하다고 알고 있다.「맞다」와「틀리다」가 뚜렷하지만, 컴퓨터의 맹점은 조작자의 실수로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했을때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고 맞는것 처럼「합리화」시켜 주는데 있다. 잘못 입력된 각종 자료가 그럴듯하게 컴퓨터로 처리되기도 하고, 몇년전 직장의 주소와 직위가 조금도 고쳐지지 않고 매달 꾸준히 배달되기도 한다.

요즈음 때때로 컴퓨터에 의한 범죄가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단지 컴퓨터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따름인데도, 컴퓨터는 합리적이고 정확하다는 평소의 인식 때문에 더욱 느낌이 강하게 된다. 총이나 칼이 사냥의 도구로 쓰여서 음식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사나운 맹수로 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지만, 남을 해치는 무서운 흉기로



구지희
(주)가인시스템 대표이사

변하기도 한다. 컴퓨터 또한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많은 도움을 알게 모르게 주고있다. 다만 이것이 주는 도움을 얼마나 유익하게 활용하는가 하는 점에 인식을 새롭게 해야된다. 자칫 잘못 활용 되어지면 그것의 역효과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겠다.

이때마다 생각나는 옛날의 시조가락이 새삼스럽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컴퓨터의 맹점을 스스로 찾고 반성하는 기획인지도 모르겠다.

「컴퓨터가 정확하다 하되,
사람에 따라 움직이더라.
고치고 또 고치면,
정확치 않을리 없건마는.
사람은 제 아니 정확하고,
컴퓨터만 틀린다고 나무라더라.」